

10월 전남서 개최 '전국체전' 홍보

도, 공식 누리집 개통...경기·주변 관광 정보 제공

전남도가 오는 10월 전남에서 15년만에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11월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을 개통하고 본격 홍보에 나섰다.

공식 누리집은 대회 개요와 경기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메뉴를 배치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구현해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축했다.

누리집은 대회 소개, 행사정보, 경기 정보, 경기 기록, 알림마당, 전남관광 등 6개의 주요 메뉴와 문화행사, 대회 뉴스 등 30개의 세부 메뉴로 구성됐다. 양대 체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특히 경기 정보와 경기 기록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링크해 실시간으로 생성한 경기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누리집에서 해당 경기장을 검색 후 지도에 표시된 경기장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카카오 맵으로 연동해 별도 경기장 검색이 필요없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남방문의 해'와 연계해 대회 기간 중 전남을 방문하는 전국 시도 선수단 및 해외동포 선수단이 전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역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2개 시·군별로 주요 관광지, 남도 먹방, 테마여행, 숙박정보를 엄

선해 게재했다. 각 시·군의 주요 관광 정보를 체전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관심도를 높이고 대회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체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체전 관련 소식은 물론 전남의 맛과 멋,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유연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월에 온 봄 낮 최고 기온이 17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12일 오후, 광주 북구 중외공원 산책로의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美 엔비디아 손잡고 '디지털 트윈' 선점 나선다

광주방문단, 현지 본사 방문 공동연구소 설립 등 협력

광주시에 인공지능(AI) 컴퓨팅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NVIDIA)와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분야 선점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끈 광주방문단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디지털트윈(가상모형)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공동연구소 설립, 인공지능(AI) 창업기업 지원 및 육성, 포럼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엔비디아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제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세계를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광주시와 인공지능(AI) 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업무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엔비디아는 독립형(외장) GPU(그래픽처리장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며, 광주에 들어선 국가AI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부품도 엔비디

아에서 공급 받을 예정이다.

실라 폴하트카 엔비디아 AI 국제부문장(Global Head of AI Nations)은 "국립 AI 데이터센터와 광주시의 목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 연구·기술 향상, 산업 도입을 위한 AI 네이션 프로그램과의 시너지와 제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디지털트윈으로 새 지평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조성해 찾고 머물고 싶은 동구 만들 것"

임택 동구청장 신년 인터뷰

"찾아오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동구, 활력이 넘치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12일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밝힌 2023년 새해 목표는 구 도심 동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동안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낡고 쇠퇴했던 도시 이미지를 벗고 이제는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는 임청장이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2년차로 접어드는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과와 일맥상통한다. 임 청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30대 젊은 세대를 끌어 모으는 데 성공해 동구 인구 '10만명'의 꿈을 달성시켰다.

민선 7기를 포함해 지난 4년 6개월 동안 180여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으며, 2403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지난 연말에는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뤘다.

민선 8기 임 청장의 목표는 ▲▲급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안전건강도시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등 6개 분야 48개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올해 동구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기반을 다지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맞물려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대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동구 곳곳에 미처 관광자원으로 발전하지 못한 숨겨졌던 자원들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구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권, 무등산국립공원권, 자산유원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중 문화전당권 개발은 이미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5·18민주광장에 '빛의 분수대'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빛의 융성', '빛의 뮤지엄', '빛의 거리' 등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야간 관광의 거점으로서 관광자원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총장로 등 구도심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 청장은 "구도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추진 중인 '총장 르네상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워크숍과 최신 소비 트렌드를 공유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동구 지역 '민원 1순위'로 꼽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임 청장은 "주차공간은 단순히 접근성 문제만이 아니라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건이다"며 "복합쇼핑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려면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총장동 15면, 동명동 29면, 동명문화마을 25면, 자원순환센터 20면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동구에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드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체찍질해 달라"고 말했다.

/유연석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주민 1인당 복지 예산 시·도 1위

세출예산 1255만7천원꼴 편성

전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도민 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실정에도, 전체 예산에 견줘 가장 적은 사회복지예산 확보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 2022년 본예산 재정지표를 분석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로 복지 취약계층

층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바 있다.

전남도는 '2022년 지방재정 공시자료'를 분석,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200만 9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주민 1인당 쓰여지는 세출예산은 1255만 7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www.kwangshin.ac.kr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1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로(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